

사설

사면, 원칙에 따라

사면이 조계종 최대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나간 분규의 터널을 빠져나와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어 종단의 대화합을 도모해야 할 마당에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가 사면이라는 점에 대하여, 또 그것이 새 총무원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안에 급급하여 고상적인 처방으로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역사의 재발을 초래하는 더 큰 화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사면을 통한 대화합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계종 역사의 긴 호흡을 보는 안목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끊임없이 일어났던 분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눈으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그에 의하여 미래의 정정 화합 승단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려는 것이 필요하다. 예외적인 규정은 그러한 큰 원칙이 선 다음에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예외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결국 이리 저리 제맛추기 식의 무원칙한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어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둔 사면이란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다시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면에 임하는 총무원 측이 당당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당당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옳고 저쪽은 그르다고 하는 아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의 역년대계를 세워간다는 대의명분을 확고히 하라는 뜻이다. 그러한 큰 입장에 설 때 그 동안의 사태 진행과정에 있었던 우리 쪽의 잘못까지도 결려하게 반성할 수 있으며, 소아적인

편견으로 극한적인 대립으로 갔던 지간의 상황을 평등심으로 돌아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면의 원칙이 정해질 때 비로소 사면의 대상이 되는 측도 소아적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면의 강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것은 사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분규가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졸속하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화회의 측도 은근히 이러한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총무원도 지나치게 이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면이 실시된 근본적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좋다. 사면을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조계종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공평무사한 원칙을 통해 조계종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 한다.

만약 진정한 합의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분규를 불모로 하여 사면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가장 먼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원칙이 서야 한다. 그에 상응하여 총무원은 공평무사한 사면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은 원칙에 의한 일방적인 사면을 확실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특별 사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상 시국을 헤쳐가는 초법적 조치인 사면이 너무 조그만 것들에 구애되어서는 안 되지만, 초법적인 조치가 함부로 발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제한도 필요하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융변의 방편을 적절히 구사해 대사면을 통해 조계종 분규의 역사를 청산하는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전통사찰 주변 건축규제

전사법 개정안 국회통과...조계종등 "환영"

전통사찰보존법(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함으로써 전통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사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이 확실시된다.

국회 문화관광위는 11월 30일 현행 전사법으로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규정을 전사법 6조 2항에 신설했다.

신설된 전사법 6조 2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8조 1항의 허가권자(시·도지사)는 전통사

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당해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화관광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전사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조계종총무원원은 1일 전사법

개정안의 문화관광위 통과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통사찰 주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사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유정길씨(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경소사찰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여법한 수행의 모습을 보여줄 때 수행환경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찰의 지역사회 활동을 강조했다.

또 이미 음식점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지자체 등 전국 10여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조계종총무원원은 지난 2월 '도시미관·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되자 곧바로 사찰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전사법 개정 활동을 벌여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면 'WCRP'서 계속

'공공의 삶을 위한 활동'을 천년의 종교의 역할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 한국에서는 불교계 대표인 태고종 총무원장 인국스님과 진각종 회장정사 등 4인을 비롯 한국 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6대 종교 대표 25명이 참석했다.

한국대표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뜻을 제언했다.

또 한국종교계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을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토록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WCRP는 지난 70년 일본에서 창설됐으며, 5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장재연 위원장 등 북측 대표단이 참석, 남북 종교인 비공식 모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김재경 기자



국회의원 연동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은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님을 예방하고 환담했다.

정치인 잇달아 조계종 방문

같은 정대승님 취임축하 속은 내년총선 표발같이

정치권 인사들의 조계종총무원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총무원장 정대승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표발같이 보는 시각도 많다.

자민련 불자회장 박철연의원은 11월 29일 정대승님을 예방

했다. 박의원은 "전통사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자민련불자회가 앞장서서 불교일을 뒷받침하고 심부름도 마다않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불교진흥을 위해 통일한글경전의 발간, 사찰 불교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국회의원의 상임고문도 이날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승님을 만났다. 이 고문 방문 때는 기자들에게 사찰촬영만 허용하고 대화를 나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인터넷TV 개국

뉴스·사이버 법회 가능

인터넷을 통한 포교 매체인 불교인터넷텔레비전(www.buddhatv.com)이 1일 개국,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갔다.

사이버 부처님 서상을 모토로 출발한 불교인터넷TV는 뉴스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포맷으로 시청자결로 다가갔다. 개국 특집으로 인도 다람살라에서 현지 촬영한 '달라 라미에게 듣는다'를 내보냈고, 불교뉴스는 불교TV 뉴스 방송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신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사이버법당은 사이버 대웅전을 조성하고, 예불과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오디오 비스해 컴퓨터를 통한 법회식도 가능하다.

7일 오후5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국 축하리셉션을 가진 임동민 불교인터넷TV사장은

"교양강화와 주간 뉴스, 뉴스속의 뉴스 등 산뜻한 프로그램도 추가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통합방송법 국회통과 종교채널 활성화 전망

통합방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교TV 등 종교채널이 크게 활성화 되고 종합유선방송국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종속소유도 가능하게 방송채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문준위가 11월30일 5년여 끌어온 통합방송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통합방송법 70조 3항에 의거해 종교채널 등 공공성이 높은 공공채널에 대해 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된다. 위영란 기자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재 발간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 포교인력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9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 과정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포교 전문인력 양성교육-종합교재>를 발간했다.

포교론, 포교실무, 계층포교론, 보살행교육, 타종교 포교 사례 등 모두 20회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 410쪽 분량으로 △포교론 △포교실무 △설법론, 신도조직론, 지도자론, 스피치교육, 신도 조직운영론, 계층 포교론 △보살행 교육, 자원봉사자 운영론,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 간병교육과 호스피스, 불교 상담의 길 △스타종교 포교사례 △정교보와 교육 등이 수록돼 있어 포교관련 기본교재로 손색이 없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조폐공사 - 현대불교 제작 보급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의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진경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성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련에 보급하고 있으나,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스타일:
1차: 만공 용성 만해 한암 경봉 청담 고암 성철
2차: 영호 동산 금오 효봉 묵담 탄허 자운 월산
◇ 보급: 날개 각 5만원·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개달을 쥐서 보내자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연일연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 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면을 안정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행행선품 제4권 30에 선행되는五分향을 찾거나 서는에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자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 정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준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염경 보현행인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계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기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감질, 영안질)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노·중풍·맥·간·심장을 디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짙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학불교대학 내 사무부 해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금주: 김정순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